

진도 ‘올해의 SNS 유튜브’ 최우수상

4년 연속 수상... 진도만의 문화·예술 등 전달

진도군은 ‘제9회 2023 올해의 누리소통망(SNS) 유튜브·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진도군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 4년 연속이다.

올해의 SNS는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누리소통망(SNS) 매체별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사)외화정책아카데미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올해의 누리소통망(SNS)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카카오톡 등 매체별로 심사해 선정한다.

진도군 유튜브 채널은 진도만의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농수

특산품을 진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시기와 주제에 맞게 재미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다.

여기에는 진도군 출신 트로트권 가수 송가인이 출연하는 영상과 함께 대부분의 영상을 군청 직원들이 출연해 때로는 연기와 귀여운 울동을 선보여 누구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든 것이 인기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유튜브 구독자 수로 3위(11월 현재, 9813명)를 차지해 어느 시군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또한 군은 ‘어서오게 날좀보게’ 유튜브 채널 외에도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진도군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활용해 다양한 군정소식과 진도 구석구석 특색있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연중 홍보하고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

신안, 탄소중립의 선구자로 우뚝 서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기관 선정...전국 기초단체 중 유일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높이 평가

신안군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이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우수 기관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안군이 선정됐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평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단체장의 관심, 사업 성과 창출, 타 지자체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신안군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3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블루 카본(유네스코 갯벌 세계유산



등재, 갯벌 복원 사업, 인공습지 조성, 유용 미생물 보급)과 그린 카본(임태도 지방 정원 조성,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 등 대규모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신안 해상풍력 8.2GW, 태양광발전 사업 10GW, 신재생에너

지 개발 이익공유제) 육성 및 활용책 등이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증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신안군의 우수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선정은 신안군이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실천을 지속해 나가며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사례의 선두 주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광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수지자체로 광역단체 4곳(강원, 부산, 대구, 인천)과 기초단체 1(신안)곳, 기업 2(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SK인천석유화학)곳이 선정됐다.

/신안=강숙복 기자

영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개최

선·이주민 공존 모색... 지원정책 방안 등 논의



영암군이 지난 23일 군청에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대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암군가족센터의 민간전문가,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영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추진계획 심의 ▲기관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유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지역경제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 촉진 방안 등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영암군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1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외국인주민 수는 8,0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했다.

영암군은 선·이주민 공존과 협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우수외국인 인재양성 및 유입 ▲안전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선·이주민 사회통합 3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시, 국립의과대학 유치 홍보 ‘구슬땀’

김대중 마라톤대회·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홍보

목포시는 26일 목포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 김대중 마라톤대회’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시는 이날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와 함께 선수 배반, 안내문 게재,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전을 펼쳤다.

시는 그동안 국립 의대신설 촉구 국회 포럼, 의대유치 홍보 캠페인 전

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전남권 의대 신설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 유치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과 행사 참여자들에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널리 알렸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실장을 면담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역민의 의료권과 건강권 보장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 서남권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강진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본격 시행

출산 전후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강진군이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난 11월초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임신부와 아기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아기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대상자별 맞

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 서비스는 산전·산후로 진행되며 건강 및 사회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건강 상태와 신생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살펴보고 모유 수유, 아기 달래기, 재우기 등 총 4회에 걸쳐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 방문은 기본방문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25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게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미래 세대 건강향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빈대 확산 차단

합동대책반 본격 가동

해남군은 최근 인근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빈대가 발생하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4일부터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차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합동대책반은 군 보건소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숙박업, 목욕업 등을 관리하는 8개 부서로 구성됐다.

해남군은 현재까지 관내 빈대 신고 등 발생 사례는 없어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8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빈대 발생 우려가 큰 시설 439개소를 점검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점검 대상은 숙박업 75개소를 비롯해 목욕업 8개소, 의료기관 5개소, 외국인 근로자 숙소 328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 11월 13일부터 공중위생업소 숙박업과 목욕장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소독실시 여부와 객실, 침구 등의 청결상태와 빈대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빈대 발생 시 영업자 자체 방제를 원칙으로 하나 자체 방제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제반이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해수·해조류·머드 등
16개 치유 테라피실 갖춘 해양치유센터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해양치유완도

2023. 11. 24.(금)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